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서로 힘 되기¹⁾

김광이(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위원,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나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지금 매우 어려운 일과 마주앉아 힘겨루기를 하는 듯합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공감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역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도 나의 지식과 이해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장애를 가진 여성 당사자로서 절실하게 여성주의에 공감되고 이해되었던 그대로 나의 감수성을 존중하고 용기 내어 말하고자 합니다.

간접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과의 만남은 80년대 초반 “대학 정립단”에서 활동하던 친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에 장애인계에 큰 희망을 줄 것처럼 소아마비회관(현재 정립회관)이 건립되었고, 장애인들의 정서를 공유하고 장애의 어떠한 몸짓도 서로에게 어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대학생이었던 친구와 그의 친구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소외와 그 시절의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서 대학생들의 어려움, 장애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로하고, 술과 허탈한 웃음으로 서로 위안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의 5명은 대학 졸업 이후에 서로 일정금액을 모아 “장애인복지신문”의 발판을 만들고 발기인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한 명인 내 친구는 걸으로는 소탈하지만 내심의 예민함과 여성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교통방송에서 한강대교가 막히고 있다는 교통정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로 한강대교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석유통을 들고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며 처음 떠오른 것은 “차로..?”와 “저렇게 과격하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나에게 운전하고 다닐 차가 있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때였고, 그들 속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그들이 남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이후에 장애인 운동의 초석이 되어 현재까지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긍정적 삶의 방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제한된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 속에도 그들 중의 소수인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 이 글은 김광이, ‘장애여성인지적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시보기 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그 여섯 번째, 2003.9.17.자료집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글입니다.

90년 초반까지 몇 번인가 이러한 운동 속에 들어오기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의기가 부럽기도 했지만 내 장애상태로 그 거칠음에 동화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역할을 상상해보아도 물건 하나 제대로 들 수 없고, 남성도 아닌 내 역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먼발치에서 보거나 듣는 바로는 그들 속의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경증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립에 대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자’ 그땐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장애를 가진 여성 운동, 나아가 여성과 장애인, 남성²⁾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일시에 자극한 것은 “장애여성”이라는 복합명사였습니다. 90년 중반에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했는데 어느 여성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장애여성의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더 필요없었습니다. 가슴깊은 곳까지 한순간의 요동이 느껴졌습니다.

‘맞아! 내가 장애인인데다 여자여서 이렇게 힘든 거였어.....’

늘 들어왔고 거부하고 싶던 “장애인이니까”가 아닌, “장애가 있는 여성이어서”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를 시도해주었습니다. 이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의 만남은 만만치 않았던 이전의 삶보다도 더욱 적극적이었고 조용한 뜨거움이 늘 내안에서 나를 자극했습니다.

여성주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운동 초기에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그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할 때, 남성은 물론 많은 여성들조차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주의는 여성상위시대를 만들려는 못된 짓거리며, 그만큼 안그래도 힘든 세상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생하는 남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시각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잘못 이해하여 특정한 여성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³⁾

여성주의는 성평등주의이며 나아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들 속에서 저항과 대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주변에서 중심을 보는 전복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영자, 1999). 여성주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가부장 사고가 만나서 가정과 사회에 미친 모순과 사회발전의 역기능을 지적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유교전통이 만나서 정상성의 사고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이것이 합리화되고 어

2) 여기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비하여 남성장애인이란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비장애남성이라 하지 않았다. 자세하게는 후술하고자 한다.

3) 여성주의가 출발하게 된 정신이 왜곡된 것은 지적되어야 하지만, 여성운동과정에서 배제와 소외의 문제는 차이가 있는 다른 여성의 시각에서 깊어져야 한다.

떻게 은폐되는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기표는 효율성과 생산성입니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여성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고비용과 저효율을 유발하므로 여성을 배제하게 됩니다(김기선미). 따라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다시 가정 내 사적영역으로 역할을 재고착화시키려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비정규직화합니다. 여기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의 속성이 숨어있습니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정치력을 위하여는 가부장적 두검을 쓴 가족 이기주의를 지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부장제는 집안(家)을 중심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혈연 등의 연고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강한 구성체를 획득하려 합니다. 가부장, 남성은 더욱 힘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성은 있는 힘을 다해 가부장을 조력하고 새로운 가부장 후보를 잘 키워내야 합니다.

이때 여성주의는 결코 임신 출산이 개인적 책임이나 家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생산 과정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에서 여성에 관련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는 여성이 아닌 다수의 남성들이 주도해왔습니다.

장애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보호 속에서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성별도 없는 장애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생계의 문제는 여성을 배제해왔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복잡한 장애특성에 개인적 필요가 다르니 평균과 보편을 대변하는, 이를테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생산력에 대하여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이윤의 사회 환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선물상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것이 기업홍보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은 공적영역에서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군정병 제도는 남성들의 최대 화두가 되는 공통경험으로 장애를 가진 남성들의 비사회화를 가중시키고, 동시에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시킵니다. 남성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조차 남성장애인은 열외로 밀리거나, 비장애남성의 우월한 자존감을 자극하여 더더욱 인정할 수 없게 하거나, 남성장애인은 소심하거나 순수하여 교섭력이 없다고 하여 남성장애인을 힘의 중심에 앉히는데 타협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장애인도 장애를 가진 여성과 마찬가지로 무성적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우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중증의 남성장애인이 더욱 공감합니다. 남성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성별이 부정되는 경험과 남성으로서의 가부장 역할의 의무감에서 오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남성장애인은 성별이

존중되지 않은 채 가정에서는 가부장의 부담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중증의 남성장애인은 형제 중의 맏이여도 가부장의 책임은 은연중에 차남에게 넘겨지고, 심리적 고통은 형식적 가부장 의무자인 형이나 실질적 의무자인 동생에게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집안일수록 명분 때문에 남성장애인의 가부장 부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남성장애인의 남성성은 종종 경시됩니다. 가족 내에서 남성으로서의 의무감과 자존감은 있지만, 사회 속에서 다른 비장애남성이 존중받으며 경험하는 사회적 권력이나 힘의 행사를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에게도 힘을 중심으로 한 외모 혹은 몸의 정상성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80년대 중반부터 곧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될 듯 장애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체였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인권은 없고 선택받은 후에야 보호만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더욱 소외를 가중하고 명분은 공고해지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장애인만의 시설화한 집단적 일터가 대기업의 의무고용율을 대신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을 리프트나 승강기에서 추락사하게 하고 여전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이동보장법(약칭)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주의는 당사자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소비주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타인에 의해 대리되어 온 관행을 거부하고, 자기에 관한 한 주체성을 인정받고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에게 있어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이념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

남성장애인들이 남성으로서 부족한 사람으로 대우받아왔음에도, 장애인계에서도 가부장전통은 뿌리를 든든히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장애인은 장애인계에서는 비장애 남성이 행사하는 가부장적 힘을 획득하고 은연 중에 이를 행사해왔습니다. 모든 장애인단체의 장은 지금까지 남성이었고, 주요 역할들을 남성이 주도해왔습니다. 실제로 성별을 구분한 장애인에 관한 통계는 교육, 노동, 외부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남성장애인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성별과 장애를 구별한 통계를 보면 비장애여성이 훨씬 유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장애인계에서 비장애여성은 남성장애인보다 하위의 일을 주로 해왔음이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장애인계에서 남성장애인은 비로소 성을 인정받고 권력을 획득하였으나, 장애를 가진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내로 역할을 몰았으며, 장애인계에서 “드센(?)” 장애를 가진 여성은 운동가로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힘들었습니다.

가부장 중심적이 가족 내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종종 임신, 출산의 주체로서도

거부되거나, 권리를 획득하였어도 어찌다 운이 좋은 장애인일 뿐이었지 장애를 가진 “여성”임은 그다지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성권은 직간접적으로 부정되면서도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가사 등의 역할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떠맡겨졌습니다. 그 역할조차 어려워보이는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성은 부정되고, 가사를 할 수 없다고 인간으로서 비가치화 되기 때문에 남성장애인에 대한 그나마의 “남자니까”받는 가부장에 대한 존중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여성의 생존과 존재의 문제는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자아실현을 말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생존권 획득에 전제조건인 교육율도 낮지만⁴⁾,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적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성차가 없는 그저 여리고 사회적 능력을 확신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을 고용한 것을 스스로 자랑삼아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도 미미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장애를 가진 여성의 일처리 능력에 경계심을 품던 동료 비장애여성의 노골적인 비하, 부도직전에 고용한 몇 명의 경력직 장애인 덕분에 기사회생하고도 회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몇 개월씩 밀린 급여에 대한 보장 없이 해고하고서 다시 비장애인을 고용하고는 불쌍해서 일하게 해주었다던 사업주, 사내에서 도망 갈테면 가보라며 성추행을 시도하려던 남성, 장애인 그것도 장애를 가진 여성이 외주업체 직원으로 방문한 것에 당황해하며 신뢰하지 못하던 거래처, 일을 맡기고는 답답해서 언제 기다리냐며 다시 비장애여성에게 외근을 주문하며 한숨을 숨기지 않던 상사.....이것이 나의 10여 년 가까운 고용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사회지표에는 성별분리 항목이 설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에서 성별분리조사는 최근 몇 년내에 이루어졌으나, 장애가 있는 여성은 “모든 여성”에서 제외되어 여성 내의 지위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간접적 접근을 통해 판단할 뿐입니다. 여성운동은 연대와 자매애를 주장하면서 다양성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몸과 힘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용인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일부 여성들에 의해 발등을 찍히는 기분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한편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질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에 장애인당사자의 절실함이 배어있지 않듯이, 동법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명문의 규정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4) 장애를 가진 여성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68%로, 남성장애인 41.4%, 비장애여성 25.6%와 현격한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 전문교육과정이라 할 대학 졸업율도 장애를 가진 여성은 4.2%에 불과하다.

속도에(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여성에게 이 법률의 적용이 쉬워진다.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 소수자 운동의 흐름을 타고 권력을 획득한 이들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지만, 우리의 자기 이해와 존중 그리고 연대가 우리를 나아가서 모든 인간을 보살피기 위한 힘을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력을 재생산하는데 가장 큰 힘은 이전과 지금과 이후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날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여성이고 장애인이어서로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적 장애의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외출을 혼자 할 수 없어서, 일찍 들어가 밥을 해놓아야 해서, 폭력 때문에, 부모가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 해서, 내 몸이 작고 초라하고 뺨뿔어져서, 혼자 장을 볼 수 없어서,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집에서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오빠 내외가 나를 책임질 거라고, 회사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안해서....등등의 여러 이유들이 장애를 가진 여성을 복합적 차별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여성주의의 유용성

대안적 여성주의는 분리 이원화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재구성을 할 것은 제안합니다. 정의·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적영역에, 사적영역에서 도덕적으로 강조되었던 배려·유대·책임·모성의 개념들을 공적영역에서 새로운 실천원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이영자, 1999)

장애인들의 문제를 경제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함양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국가 운영과정에서 장애의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사업 같은 개인적 영역으로 밀어두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주장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운동의 토대는 이미 기존의 학문적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경험적 삶이 여성을 움직이게 하였고, 여성운동의 경험으로 여성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경험적 삶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만들어진 용어일 뿐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인 것입니다.

장애인 운동에서 중요한 이념인 당사자주의도 자기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자기 대표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주장하는 것으로 경험에 의한 사고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전개해온 경험중심적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중심적 사고는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으로 개념화된 정상성을 설정한 개념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사적인 차별을 보다 역점적으로 살펴보게 하고, 차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내재화하여

서로 다른 여성간의 나아가 다른 사람들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하여 정치화할 것을 제안하게 합니다.

요즘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회학자인 이영자는 “현 체제와 문명에 안주하고 그 주류에 적응, 편승하는 것에 주관심을 갖는 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진보란 어느 체제이든 간에 그 체제의 모순과 성모순을 함께 꿰뚫어보는 문제의식,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체제에 대한 저항과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시각으로 대안 찾기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어떤 장애유형이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바라고 있음에도 다양한 참여가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힘 갖추기에서 소외된 장애유형의 사람들과 단체,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음에도 장애인시민단체조차 우리들 세계에서 진정한 연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과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다름으로 인한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고 대안의 틀을 만들기 보다는 다름을 주장하며 배척하여 왔습니다.

또한 속도와 정상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성찰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가치화되는 사회에서 또한 우리의 방식과 초점을 명확하게 개발하지 못한 혼란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를 가진 여성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인식 출발점을 설정해야 하는가.

흑자는 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분리되어 운동하려 하느냐고 합니다. 오히려 더욱 비주류 밀리게 되고 불리해지지 않느냐고 합니다. 우리 누구도 분리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다름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다원적인 문화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는가. 장애를 가진 여성의 억압받는 복합적 차별 경험들이 문화화되고 재사회화로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는 장애를 가진 여성도 모든 여성이고 모든 장애인이며 모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 되는 집단적 경험들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여성주의이며 당사자주의로써 실현되어야 할 평등을 어떤 인간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으로만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의 문제, 성차의 문제는 자본과 생산의 극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의 중심이 “정상”이라는 가면으로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으로 배제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성은 다시 재생산의 주체라는 명분으로 가정 내로 밀려질 것이며, 장애인은 복지적 보호, 생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가정으로 시설로 밀려질

것입니다.

우리속의 소수를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찢고 낙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장애문제의 해결, 나아가 사회문제해결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관련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회가 혹은 국가가 장애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해결해나가는 인권보장 판단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회를 인식하기 바라듯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외모 중심적인 “정상성”을 가치로 판단하여 인간을 왜곡하는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의 역할은 중요해질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험으로 인권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주의는 소수자의 소외 관점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도 자기의 성과 장애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존중받을 수 있으며 나와 같은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 주고 받기와 익숙해지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은폐와 거짓으로 야만인이 되어가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 잔잔하게 혹은 큰 소리로 인권운동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지혜도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목소리로 만들어내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찰”,

제3기 여성장애인 인권 아카데미 자료집, 한국장애를 가진 여성연합, 2003.5.

김기선미,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김은정,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03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당사자주의와 장애인운동, 2003.7.

배용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제1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공청회 자료집, 2003.6.

벨혹스/박정애,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2002.11.

이영자, “여성학의 최근 추이 및 대안적 패러다임 찾기”,

제1회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교육 강의 자료, 1999.10.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여성정책 수련회 자료집, 2002.

고정갑희, “성장치와 여성주의 문화론-구분하기, 가로지르기, 바꾸어내기”, 여성이론 통권 2호, 2000.1.

<http://cafe.daum.net/KDA2003>(장애인차별금지법연구모임 카페 자료실)